

‘양식작황 부진’... 전남 어획량 12만톤 줄었다

통계청, 2022년 어업생산동향 186만여톤 생산 전년비 6.3% ↓
국내 총 어업생산량 중 58.3% 해면양식업 생산량 감소폭 커

양식업 작황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해 국내 어업생산량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업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지역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지난해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은 186만6293톤으로 전년(199만2190톤) 대비 6.3% 감소했

다. 육지에 가까이 있는 바다에서 이뤄지는 어업인 연근해어업의 경우 15만6365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면양식업은 169만1872톤을 기록했다. 뱀장어 등 담수나 기수에서 어종을 포획하는 내수면어업의 경우 1만8057톤에 불과했다.

전남의 어업생산량은 국내 총 생산량인 320만4000톤의 58.3%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민 밥상 위에 오르는 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한 양식업 작황 부진과 연근해어업의 어군 형성 부진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경우 참조기와 첫새우류, 전복, 미역류가 주요 품종으로 분류되는데 지난해 초 영양염류 부족 등 이상조류와 강풍과 같은 어업재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특히 해면양식업어 생산량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 어업생산량 역시 지난해 360만4000톤으로 전년(383만2000톤) 대비 6.0% 감소했다. 이는 2016년(326만9432톤) 이후 가장 적은 생산량으로 내수면어업을 제외한 해면양식업(-5.6%), 연근해어업(-5.9%), 원양어업(-10.3%) 생산량이 모두 감소했다.

연근해어업에서는 어군 형성 부진, 채산성 악화로 인한 조업 축소 등 참조기, 멸

지 등의 어획량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전남 주요 품종 중 첫새우류는 지난해 2만5000여톤이 생산되며 전년(2만여톤) 대비 23.2% 증가했지만, 참조기의 경우 3만2000톤에서 1만6000톤으로 무려 48.0%나 어획량이 줄었다. 해수부는 참조기 주요 어획 시기에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절반 수준의 낮은 자원 밀도가 지속되고 있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생산량이 줄면서 어업생산액도 함께 줄어들었다. 지난해 어업생산액은 9조2413억원으로 전년 9조2817억원 대비 0.4% 감소했다.

해수부는 올해 양식업 생산량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수온 및 저수온 등으로 인한 어업 피해만 크지 않으면 지난해 양식수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됐기 때문에 종자 입식량이 증가하는 등 사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경규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연근해 어업경영 여건 악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어업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민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 수산자원 회복 및 어장환경 개선 등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북광주세무서는 지난 24일 장성군 소재 보해양조(주) 장성공장을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북광주세무서 제공

북광주세무서, 보해양조 현장 애로 청취

장성공장서 세정지원 간담회

북광주세무서는 지난 24일 장성군 소재 보해양조(주) 장성공장을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재훈 세무서장을 비롯해 해당 과장, 팀장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및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업체의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조영석 보해양조(주) 장성공장 대표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향토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재훈 세무서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향토기업을 방문해 소통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제 1056회 나눔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3 20 24 32 36 45	29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19억6966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5673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42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지역 건설단체연합회 “광주시 건축물 개선방안 지지”

광주·전남 14개 단체 성명 도시 경쟁력 제고 등 기여

광주·전남지역 14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는 최근 광주시가 도시건축정책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발표함에 대해 지지와 환영 입장을 내놨다.

연합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21일 광주시가 발표한 건축물의 층고제한 폐지, 주택건설 통합심의, 용적율 개선 등 도시경관·건축물디자인 개선방안을 환영하며 강력한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역건설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가파른 금리인상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부동산 PF 자금 조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출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광주는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이라는 획일적인 층수제한으로 단조로운 아파트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특색 없는 회색도시라는 오명을 얻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인 높이와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으로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역동적인 스카이라인 조성을 통해 광주만의 특색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소요되던 개별심의를 통합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상당부분 단축돼 금융비용과 분

양가 인하로 서민의 주택구입과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더불어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광주만의 차별화된 도시경관 형성과 수려한 디자인으로 역동적인 스카이라인과 상징적인 건축물을 조성해 광주의 미래성장 동력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오고 싶은 광주, 머물고 싶은 광주,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데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건설업계도 광주시의 도시경관 개선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정책 기조에 따라 그동안 단조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에서 탈피, 개성있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 ‘특정금전신탁 ETF’ 출시

광주은행은 ‘특정금전신탁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상품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직접 지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 후 그 운용 수익을 배당하는 신탁상품으로, 이번 상품 출시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데 고객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

도록 ETF 상품이 추가됐다.

ETF는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 수고로움 없이 거래소에 상장된 인덱스펀드(주가지수와 실물자산의 가격과 연동돼 선정된 목표지수와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국내 대표 자산운용사인 삼성자산운

용, 미래에셋자산운용사와 업무 협약해 KODEX 200, TIGER 미국나스닥100 등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과 2차전지 등 유망섹터 ETF 상품 총 10개의 상품을 추가했으며, 향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ETF 상품을 추가해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가입 및 ETF 상품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Q&A

문 사례1> 직장인 A씨는 유튜브(구독자 10만명, 추천 댓글은 100개 이상)에서 은행직원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재테크 동영상 ‘은행원이 꼭 알려줍니다. 남다른 저축으로 더 많은 이자 받기, 지금 시기가 적기입니다!!’를 봤다. 내용이 솔깃해 동영상에 연결돼 있는 은행사이트에 들어가 본인이 이용하는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및 예금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계좌를 개설한 후 문자 메시지로 받은 가상계좌에 예치금을 입금했다.

사례2> 자영업자 B씨는 OO은행(제도권 금융회사)으로부터 “귀하는 최근 난방비와 함께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 고금리, 고물가로 힘겨워하는 금융취약계층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새 유형 피싱사이트·보이스피싱 유의하세요

행된 ‘비상편성 민생회복 정책자금대출’ 대상이지만 아직 미신청으로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메세지에는 ‘신규자금 조기 소진 예정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 기한이 촉박하다’는 내용과 ‘정부기관에서 100% 보증하는 대출이라 별도의 담보가 필요없다’며 상담센터 전화번호가 안내돼 있었다. B씨는 상담센터로 전화를 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하다는 자금을 입금했다.

위 두 사례 모두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피싱사이트와 보이스피싱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유형의 피싱사이트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으므로 아래에서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한 대응요령에 대해 알

아보자.

답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최근 유튜브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하거나, 난방비 등 생활비가 급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악용해 허위 정책자금대출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구독자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해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였으며, 피싱사이트를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

들었다. 또한 사기범들은 특정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의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담전화로 하도록 유도했고,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자금대출이라고 속이며 촉박한 기한 내 빠른 접수가 필요하다고 홍보했으며, 상담센터로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자금 입금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해야 한다.

둘째, 계좌를 개설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도록 먼저 요구받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입금을 거절해야 한다. 특히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메세지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입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해당 회사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면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sc.kr))>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회)해야 한다.

넷째, 대출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존대출 상환 또는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자금 입금을 요구하면 우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전화 133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